

광주체고, 체고대항 체육대회 57개 메달 획득 '선전'

금 18·은 14·동 25개 수확
5위...전년 대비 두 계단 향상
남자 양궁 박주혁 3관왕 달성
역도 김체량 女+87kg 금 3개
사격 김유준·역도 황성민 2관왕



광주체고 역도 김체량이 여고부 87kg 이상급에서 3관왕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고 양궁선수단이 지난 5일 대구시 일원에서 끝난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양궁 종목에서 금 3개와 은 2개, 동 2개 획득으로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육고가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쳤다.

광주체육고는 지난 3~5일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 31개 종별에 199명(선수 165·감독교사 10·코치 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8회 대회(금 14·은 15·동 28개)와 비교해 2계단 향상된 성적이다.

또 올해 목표(금 13·은 10·동 10개)보다 금 1개, 총 메달수 24개를 더 획득한 성적

이다. 이번 대회 광주체고가 획득한 메달은

과 함께 남고부 단체전에서도 총 3971점을 기록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주혁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체고 양궁은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역도 김체량은 여고부 87kg이상급에 출전해 인상 92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용상 120kg으로 1위, 합계 212kg으로 1위를 차지하며 3개의 금빛 바벨을 번쩍 들어올렸다.

역도 황성민(3년)과 사격 김유준(1년)은 2관왕에 올랐다. 황성민은 남고부 73kg급에서 인상 116kg 1위, 용상 138kg 2위, 합계 254kg 1위를 각각 차지했다.

김유준은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36.1점을 쏘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조은준(2년)·박지민·김다훈(이상 3년)과 나선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합계 1707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육상 높이뛰기의 윤준호(3년)와 세단뛰기의 신은상(3년), 근대3종 남고 개인전의 최지웅(2년), 유도 무제한급의 신민성(3년), 레슬링 자유형 57kg급의 박인성(3년), 자유형 97kg급의 이재혁(3년), 그레코로만형 55kg급의 신종훈(3년), 태권도 라이트헤비급의 최진우(2년)도 금메달을 수확하며 광주체고의 선전에 힘을 보탤었다.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도 금 5·은 1개, 양궁 금 3·은 2·동 2개, 레슬링 금 3·은 1·동 7개, 사격 금 2·은 2개, 육상 도약 금 2·은 1개, 육상 단거리는 5·동 4개, 유도 금 1·동 5개, 태권도 금 1·동 2개, 근대3종 금 1·동 1개, 핀수영은 2·동 2개, 복싱 동 1개, 체조 동 1개다.

특히 양궁 박주혁(2년)과 역도 김체량(2년)은 각각 3관왕을 달성하며 광주체고의 선전을 이끌었다.

박주혁은 남고부 90m에서 321점을 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70m(330점 5위)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50m에서 338점으로 동메달을, 30m에서는 354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주혁은 거리별 합산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개인전에서는 총 1343점을 기록,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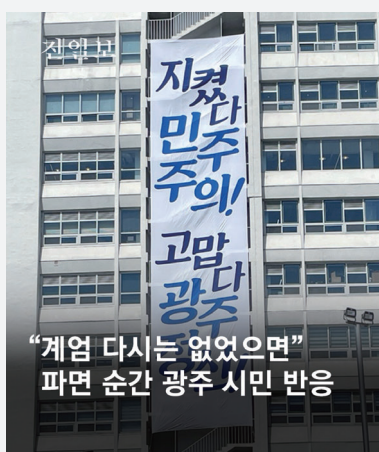
또 배정원(3년)·심유한(2년)·김중현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尹 파면... "광주시민이 민주주의 지켜냈다"



한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 5·18민주광장 인근에 모인 시민들은 격렬한 환호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쏟았고, 일부는 열싸안고 기뻐했다. 선고가 끝난 한참 후에는 현장에서 파면 환영 대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 이후 1060일 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박미경(62)씨는 "만장일치 파면을 이끌어내 너무 기쁘다. 다시는 이런 내란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할 것이다. 광장을 지킨 힘은 광주공동체 모두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재 "12·3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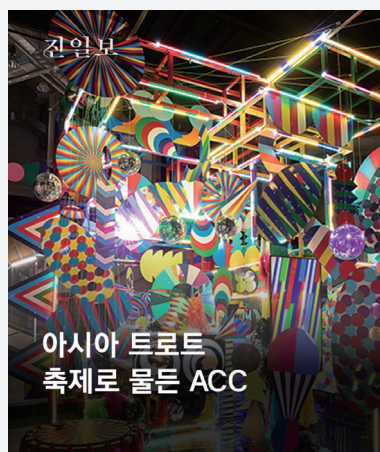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먼저 한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국가비상사태'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 예산 삭감, 선거 부정 의혹 등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갈등일 뿐, 병력을 투입할 만큼의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원 및 법조인에 대한 위치 추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모두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두암동 한 골목 '커피향기·차 향기' 가득한 곳은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주택가 골목.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 놓칠지도 모를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그곳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립서점 '치웃의 자리'가 있다. 도심의 소음에서 한 걸음 비껴난 이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 이 드문 만큼 더 깊고, 더 조용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서점 주인이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책들은 단순히 '읽는 책'을 넘어 마음에 머무는 감정을 선물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문득 달콤한 디저트가 인사하듯 다가온다.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은 어느새 더 깊은 여운으로 남는다. 책과 커피,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조용히 공존하는 공간, 치웃의 자리는 아주 '사적인 안식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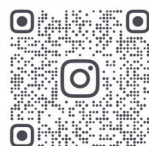
ACC, 아시아의 트로트 재해석 '애호가 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색다른 전시를 준비했다. 한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감성을 담은 트로트 이야기 '애호가 편지'다. 애호가 편지는 각국 도시별 문화 등 긴 세월로 빛어낸 '트로트'를 통해 그 안에서 살아온 평범한 이웃들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하는 전시다. 이 외에도 트로트와 연관된 두 가지 아카이브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전시 기간은 오는 8월24일까지다. 아카이브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트로트와 트로트 여왕 주현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의 초창기 계약서를 감상할 수 있다. ACC에서 트로트를 통해 아시아의 감성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KIA, LG에 2연패... 1-5 패



'디펜딩 챔피언' KIA타이거즈가 올시즌 우승 경쟁 상대인 LG트윈스에 2연패를

아쉬운 투구로 시즌 첫 패전의 멍에를 썼다. 7회 구원에 나선 좌완 최지민도 1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8회 마운드에 오른 좌완 박도규는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KIA는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2차전에서 1-5로 졌다.

지난 4일 1차전에서 2-8 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이날 경기에서도 패하며 4승 8패·승률 0.333으로 최하위 한화(4승 9패·승률 0.308)에 0.5경기 차 앞선 9위에 머물렀다.

KIA 선발 아담 올리는 6이닝 동안 4피안타 4사사구 4탈삼진 4실점(3자책)의

KIA 타선은 단 4안타 1득점에 그치며 팀 패배를 자초했다.

KIA는 이날 0-0으로 맞선 2회말 선발 올리의 제구 난조와 수비 실책으로 3실점했다. 4회말에도 올리의 제구 난조로 추가 1실점한 KIA는 7회초 2사 3루에서 변우혁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쫓아갔다.

하지만 곧이어는 7회말 1실점해 1-5로 뒤졌고,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인천시청에 역전패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최하위 인천시청에 역전패를 당하고 연습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5일 강원 삼척시 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에서 인천시청에 22-24로 졌다.

이날 패배로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두 번째 연습에 실패했고, 5승 2무 13패(승점 12)로 6위에 머물렀다.

광주도시공사는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며 전반은 11-10으로 근소하게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초반 주축 공격수

김지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인천시청에 연속 속공을 허용, 12-15로 역전 당했다. 이후에도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끌려다니다 이민지 골키퍼의 선방으로 1골차까지 추격할 기회를 잡았지만, 실책으로 오히려 속공을 허용하며 다시 3골 차로 벌어지며 승기를 내줬다.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도시공사는 서아루와 정현희, 김지현이 각각 4골씩 넣으면 공격을 이끌었고, 이민지 골키퍼가 7세이브로 맞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최동환 기자